

3시간마다
모기기피제
사용



일몰 후부터
일출 전까지
활동 자제



말라리아 예방수칙

야간활동 시
밝은색
긴 옷 착용



야외활동 후
샤워



해외여행 시 주의사항



- ☑ 해외유입 말라리아는 주로 **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감염**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☑ 또한 말라리아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으므로 **말라리아 위험국가를 방문**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**여행 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**하여야 합니다.
*해외감염병NOW를 통해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
- ☑ 귀국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**즉시 의료기관에 방문**하시기 바랍니다.



말라리아로부터 나를 지키자!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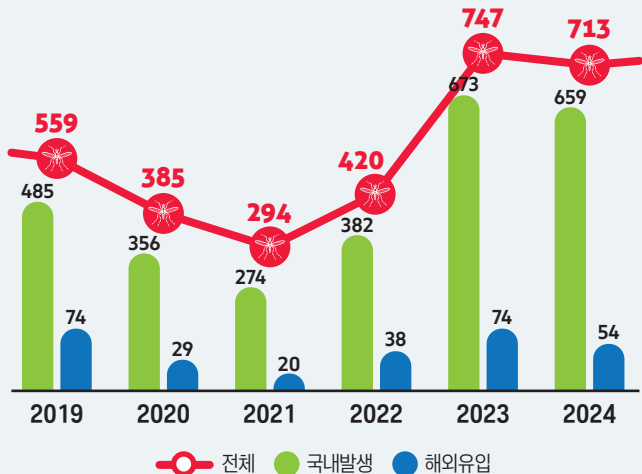
말라리아란?

-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면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.
-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~30일이지만 여러 요인으로 최대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봄에 출현하여 가을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매개모기는 주로 풀숲이나 축사 외벽, 벤치 아래 등에서 휴식하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동합니다.



말라리아 발생현황

- 말라리아는 코로나-19 이후 해외여행, 야외활동 증가로 연 700명 내외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말라리아 증상

-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, 오한, 두통, 근육통, 피로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입니다.
*기침, 가래를 동반하는 감기와 다름
- 특히 국내에 도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반복됩니다.

오한

심한 오한이
30분~2시간 정도 지속



발열

39℃ 이상 고열, 심한 두통,
구토가 수 시간 지속

발한

체온이 급격히 정상화되면서
땀이 난 후 지치고 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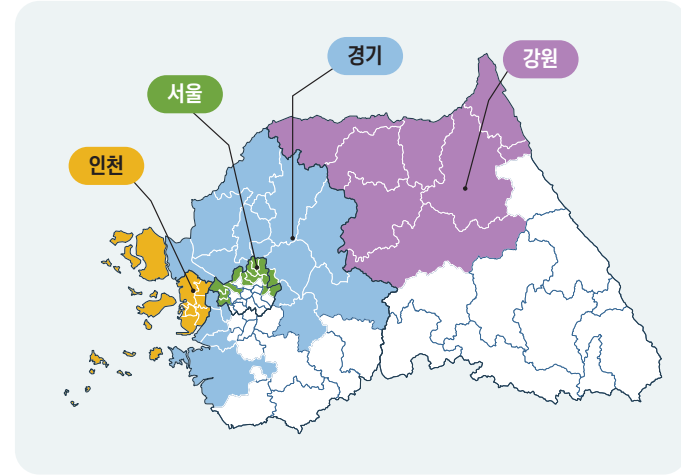


- 해외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이며, 증상은 삼일열 말라리아와 비슷하지만 열발작이 주기적이지 않습니다.
- 그러나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증으로 발전하여 24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우선입니다.



말라리아 위험지역

- 국내 말라리아는 접경 지역인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.



- 최근 3년간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은 경기(파주시, 김포시, 고양시, 연천군), 인천(강화군, 서구), 서울(강서구), 강원(철원군)입니다.

* 주소지 기준

